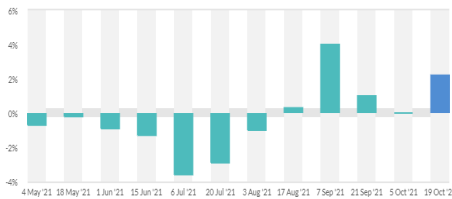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시세 꾸준한 수요로 2.2% 상승

- 서유럽 수출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



지난 10월 19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2주전 보합세를 기록했던 유제품 가격이 2.2% 상승했다. 가격지수 또한 1,256포인트로 전장 대비 2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버터가 톤당 5,111달러(약 601만원)로 4.7%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체다치즈도 2.9% 오른 톤당 4,429달러(약 521만원)를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탈지분유도 톤당 3,401달러(약 400만원)로 2.5% 상승했고, 2주전 하락했던 전지분유도 톤당 3,803달러(약 447만원)로 1.5% 오르며 재반등 했다.

업계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력난, 물류대란 등의 요인으로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한편, 유제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0월 15일 USDA가 발표한 서유럽 유제품 수출가격도 2주전 대비 버터는 6.8%, 전지분유는 2.6%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고, 2주전 하락했던 탈지분유도 1.2% 오르며 재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10월 19일 >

[지속가능] 캐나다 낙농-환경단체, 지속가능 발전 협력키로

- 나무심기, 플라스틱 재활용 등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성 향상 도모



캐나다 낙농업계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체결했다.

최근 캐나다낙농가협회(DFO)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 보존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환경단체와 협력해 낙농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무심기를 통한 산림자원 조성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매립지에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농업용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0월 19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